사단법인 한국부인회총본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일시	2026년 6월 24일(수)
	담당	한국부인회총본부 02-701-7321

“소비자 신뢰 없는 AI 혁신은 불가능하다”

소비자단체·학계·산업계·정부가 함께 소비자 신뢰와 AI혁신 포럼 출범

- 6월 22일(월)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 및 제1차 라운드테이블 개최
- AI 시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제안

인공지능(AI) 기술이 소비자의 일상과 산업 전반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AI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출범하였다. 7개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부인회총본부, 미래소비자행동, 한국YMCA전국연맹)와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으로 6월 22일(월) 3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소비자 신뢰와 AI혁신 포럼’ (이하 포럼) 출범을 기념하며 제1차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이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산업 구조, 소비자 생활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AI 서비스를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되었다. 출범식에는 포럼 공동의장 겸 소비자시민모임 문미란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축사를 통해 포럼 출범의 의미와 AI 시대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출범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김현수 포럼 공동의장 •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의 ‘소비자 신뢰와 AI 혁신을 위한 기본원칙(안)’과, 유성희 소비자시민모임 AI위원회 위원장•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의 ‘AI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제안’ 발표에 이어, 이어지는 패널 자유토론은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AI안전연구소,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카카오, LG전자, 정보인권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AI 신뢰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AI 기술의 확산 과정에서 제기되는 소비자 피해 예방,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 공정성 등의 쟁점을 소비자 관점에서 논의하고, 정부·학계·산업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 기술의 발전은 산업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지만, 소비자의 신뢰 없이는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구축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소비자 관점의 AI 신뢰 원칙을 정립하고, 정부·기업·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 하는데에 포럼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향후 「소비자 신뢰와 AI 혁신 포럼」은 AI 기술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정책 및 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 **(사)한국부인회총본부 17개 시·도 지부** ----------

서울특별시지부, 인천광역시지부, 부산광역시지부, 광주광역시지부, 대전광역시지부, 대구광역시지부, 울산광역시지부, 경기도지부, 강원특별자치도지부, 경상남도지부, 경상북도지부, 전라남도지부,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충청남도지부, 충청북도지부, 세종특별자치시지부,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한국부인회총본부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 35 ☎ 02-701-7321~2